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얼굴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보다 잘 읽어 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흔히 얼굴 표정은 감정을 보여 주는 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표정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감정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읽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정을 주제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폴 에크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인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보편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감정이란 놀람, 두려움, 혐오, 화남, 행복, 슬픔인데요, 각각의 감정을 느낄 때 특정한 얼굴 근육이 움직이게 되어 표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사진을 보시죠. 한쪽은 무표정한 얼굴이고 다른 한쪽은 화가 났을 때의 얼굴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눈썹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운데로 모아집니다. 또 위아래 눈꺼풀은 긴장되고 눈은 노려보는 형태가 됩니다. 입술은 단단히 맞물려 있거나 네모꼴로 벌어지죠. (다음 화면을 가리킨 후) 지금 보시는 사진은 슬플 때의 표정입니다. 슬플 때에는 눈썹의 안쪽 모서리가 올라가고 가운데로 몰립니다. 이때 눈썹 아래 피부는 삼각형 모양이 되고 위 눈꺼풀의 안쪽도 올라갑니다. 입술의 끝이 내려가며 입은 느슨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두 사례에서 보다시피 무표정을 기준으로 근육의 움직임을 비교하면 사람의 감정을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과 관련된 표정 중 1초가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만 나타나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감정을 읽어 내기 어려운 표정이 있습니다. 이를 미세표정이라 부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미세표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표정을 짓는 본인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짧은 시간에 나타나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 때문에 이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요긴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미세표정에 주목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상대방의 감정을 보다 잘 읽어 낼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은 사람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 표정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줄이며 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발표 내용의 근거로 삼아야겠어.
 - ② 발표 도입부에 질문을 하여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겠어.
 - ③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어.
 - ④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 ⑤ 발표 주제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도와야겠어.

2.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발표 내용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정

- 사람은 인종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감정을 갖고 있음. ㉠
- 그 감정은 놀람, 두려움, 혐오, 화남, 행복, 슬픔임. ㉡

표정

- 얼굴 표정은 감정을 보여 주는 창으로 감정에 따라 표정의 차이가 나타남. ㉢
- 표정의 차이는 주로 눈과 입 부위 근육의 움직임을 비교하여 알 수 있음.
- 미세표정은 감정 이해의 요긴한 단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함. ㉣

☆ 상대방의 감정 파악을 위해서는 표정의 변화를 잘 살펴야 함.

☆ 표정에 주목하여 감정을 잘 파악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줄일 수 있음.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보기>는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청자 1: 평소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얼굴 표정에 주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표정을 잘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겠어. 그리고 발표에서 언급한 표정 이외에 다른 표정들은 어떻게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봐야겠어.

청자 2: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라 그런지 표정을 통해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발표 내용에 공감이 돼. 그런데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해야 좋을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아쉬워.

청자 3: 외국인과 대화할 때 표정을 보고 감정을 알아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어. 그런데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무례한 행동으로 생각하는 문화권의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들은 표정을 통한 감정 파악에 서툴 수 있을 거야.

- ① 청자 1은 발표 내용을 통해 평소 자신의 대화 습관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군.
- ② 청자 2는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표 주제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군.
- ③ 청자 3은 발표 내용과 연관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
- ④ 청자 1과 청자 2 모두 발표 내용에 구체적 사례가 누락된 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군.
- ⑤ 청자 1과 청자 3 모두 발표 내용에 자신의 경험을 적용하여 이와 관련된 의문을 제시하고 있군.

[4~7] (가)는 학생들이 '직업 소개'를 글감으로 하여 교지에 실을 글을 작성하기 위해 실시한 인터뷰이고, (나)는 이를 참고하여 '학생 1'이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 텐데 이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로케이션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니저 : 로케이션 매니저는 직접 발로 뛰거나 정보를 검색해 촬영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섭외하는 일을 하는데,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학생 2 : ㉠ 배경이 되는 장소 섭외를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고 하셨는데, 여러 장소를 다닌다는 점에서 여행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촬영 장소를 섭외하는 것과 여행을 다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매니저 : 여행이 관광을 위해 자신이 가고 싶은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라면, 촬영 장소 섭외는 촬영 목적과 감독의 의도를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작품 분석은 물론 조명 및 음향까지 촬영의 모든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하지요.

학생 2 : ㉡ 촬영의 목적과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소를 섭외한다는 점에서 여행을 다니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매니저 : 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차 및 물품 운송, 숙소와 식사 장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등 촬영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촬영이 있는 날에는 ㉢ 아침 일찍부터 나와 밤늦게까지 촬영장에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학생 1 : 촬영 과정에서 로케이션 매니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군요. 일을 하시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매니저 : 장소 섭외를 위해 자주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어 체력적으로 지칠 때가 많습니다. ㉣ 제가 5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약 60만 km, 지구를 열다섯 바퀴나 돌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학생 2 : 말씀을 들어보니 쉽지 않은 직업이네요. 혹시 멋진 촬영 장소를 찾을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매니저 : 저는 평소 문학 작품을 즐겨 읽으며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답사하는데, 이러한 습관은 촬영 장소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진에 대한 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촬영에 적합한 장소를 발견하고,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생 1 : ㉤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니 신기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니저 : 박경리의 '토지'에는 하동과 섬진강 일대의 풍경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데, 저는 그곳을 직접 답사한 후, 드라마 촬영 장소로 섭외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 2 : 그렇군요. 끝으로, 로케이션 매니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매니저 : 로케이션 매니저는 일이 고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열정과 끈기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훌륭한 로케이션 매니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1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

로케이션 매니저란 촬영의 목적과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여 촬영에 적합한 장소를 섭외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촬영의 목적과 감독의 의도를 파악한 후 이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섭외해야 하는데, 방송 관련 미디어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직업적 전망이 매우 밝은 편이다. 그렇다면 로케이션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할까?

로케이션 매니저는 눈에 보이는 풍경이 화면으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므로 평소 사진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신의 주변 풍경을 촬영하고, 촬영 각도나 시기에 따라 그 풍경이 어떻게 달리 보이는지 파악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또한 작가들은 자신이 인상 깊게 봤던 장소를 문학 작품의 배경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촬영 장소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넓히기 위해 문학 작품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로케이션 매니저는 촬영 장소를 섭외하기 위해 낯선 곳을 찾아다니거나 오랜 시간 동안 운전하기 때문에 강한 체력과 끈기가 요구되는 고된 직업이다. 따라서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로케이션 매니저는 촬영에 부합하는 장소를 발견하는 일을 한다. 이 직업에 대해 관련 정보를 찾아 모아 수집해 볼수록, 로케이션 매니저가 큰 매력을 지닌 직업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4. ㉠~㉤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상대방의 발언 일부를 재진술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상대방의 발언을 요약하며 질문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③ ㉢ :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발언에 대한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 :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며 자신의 발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 : 새롭게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언급하며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5. 다음은 (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학생 1'과 '학생 2'가 대화를 나눈 후 작성한 인터뷰 계획표이다. (가)를 고려할 때, ㉠~㉣ 중 인터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로케이션 매니저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며 인터뷰를 시작해야겠어. ㉠
- 로케이션 매니저가 하는 일을 촬영 관련 다른 분야의 일들과 비교하여 설명해 달라고 말해야겠어. ㉡
- 로케이션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아봐야겠어. ㉢
- 로케이션 매니저로서 좋은 장소를 발견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달라고 부탁해야겠어. ㉣
- 로케이션 매니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해야겠어. ㉤

- ① ㉠ ② ㉡ ③ ㉢ ④ ㉣ ⑤ ㉤

6. 다음은 (가)에 참여한 ‘학생 1’이 (나)를 쓰기 위해 ‘학생 2’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가)와 (나)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학생 2: 인터뷰 내용을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했잖아? 어떤 방식으로 글을 전개할 거니?
 학생 1: 로케이션 매니저분은 _____

- ① 사진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나는 풍경에 따라 사진 촬영 방법과 촬영 시기를 어떻게 달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해야겠어.
- ② 직업적 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높다고 하셨지. 나는 로케이션 매니저의 이직률이 높은 원인을 분석하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야겠어.
- ③ 촬영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고 하셨지. 나는 촬영 장소와 목적에 따라 로케이션 매니저가 담당해야 하는 일들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야겠어.
- ④ 직업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중요하다고 하셨지. 나는 열정과 끈기가 요구되는 다른 직업의 사례를 제시하며 로케이션 매니저가 되는 데 왜 열정과 끈기가 필요한지를 설명해야겠어.
- ⑤ 멋진 장소를 발견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말씀하셨지. 나는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는 로케이션 매니저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나열하며 이 직업에 대해 설명해야겠어.

7. 다음은 (나)를 쓴 후 ‘학생 1’이 교지 편집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내 주신 검토 의견 중 (㉠)해 달라는 말을 고려해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로케이션 매니저는 촬영 과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촬영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장소를 발견하고 섭외하는 일을 한다. 이 직업에 대해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볼수록, 로케이션 매니저가 큰 매력을 지닌 직업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 ①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직업의 전망을 추가하고,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은 삭제
- ②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직업의 전망을 추가하고, 주술 호응이 어긋나는 문장은 수정
- ③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직업의 의의를 추가하고, 주술 호응이 어긋나는 문장은 수정
- ④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직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은 삭제
- ⑤ 로케이션 매니저라는 직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은 삭제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문 작성하기
- 예상 독자: ○○구청 정책 담당자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구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며칠 전, 아파트 출입구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께 다가가 그 이유를 여쭙니, 할머니께서는 단지 내의 아파트 모습이 다 비슷비슷해서 집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변의 다른 분들도 보행로와 차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아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 외출을 꺼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인지건강디자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지건강디자인이란 기존의 주거 환경 디자인을 새롭게 바꾸어 사람들이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건물의 출입구에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붙이거나 건물 안팎의 숫자나 글자, 방향 표시 등을 눈에 띄는 색으로 크게 표시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노인들은 물론 인지 능력이 저하된 다른 사람들도 길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을의 건물과 마을 주변에 있는 공원, 쉼터 등에 이러한 인지건강디자인을 적용한다면 노인들이 길을 찾기 어려워하는 상황도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노인들이 안심하고 외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인지건강디자인의 적용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배려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건의 내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 ② 건의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 ③ 건의 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견해를 종합하여 검토하고 있다.
- ④ 건의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상되는 반론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⑤ 건의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방안과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9.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학생의 초고'에 반영된 생각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인지건강디자인에 주목해야 할 우리 지역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떤가?
 ㉡ 인지건강디자인의 도입을 건의하게 된 계기로 나의 경험담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가?
 ㉢ 인지건강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적 조건과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는 것은 어떤가?
 ㉣ 인지건강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개념과 이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어떤가?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10. '학생의 초고'를 수정·보완하려고 할 때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 료>

(가) 통계자료 (◇◇ 연구소)

1. 노인들이 외출을 꺼리는 이유 (중복응답)

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72%
안전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64%
편안히 쉴 곳이 없기 때문에	37%

* 설문 참여 대상: ○○구 65세 이상 지역 주민 500명

2. 인지건강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인지건강디자인으로 인한 주거 환경의 변화에 만족하는가?

* 설문 참여 대상: △△구 20세 이상 지역 주민 1,000명

'그렇다'라고 답한 이유 (중복응답)

A: 길 찾기가 쉬워짐
 B: 안전사고의 위험 감소
 C: 인지 능력 저하 개선

(나) 신문 기사

지난해 △△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던 장소의 바닥에는 초록색으로 보행로를 표시하고, 턱이 있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구분하는 등 인지건강디자인을 적용하여 마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다. 이후 해당 지역의 노인들은 하루 2회 이상 외출하는 빈도가 40%p 이상 향상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임산부의 보행 중 안전사고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의학 전문가 인터뷰

“노화로 인한 인지 능력의 저하는 약물 치료 없이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출입구나 바닥의 색깔을 밝은 색깔로 바꾸거나 집마다 다른 디자인의 문패를 사용해 시각적 감각을 자극하면 노인들의 인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길거리에 노래가 나오는 이정표를 설치하거나 다양한 꽃을 심어 생활 속에서 감각을 자극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① (가)-1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길 찾기가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외출을 꺼린다는 내용의 근거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겠어.
 ② (나)를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행로와 차도의 색 구분을 명확히 하는 인지건강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함을 추가해야겠어.
 ③ (다)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인지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마을에도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④ (가)-1과 (다)를 활용하여, 마을 공원이나 쉼터 등 노인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노인들의 외출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제시해야겠어.
 ⑤ (가)-2와 (나)를 활용하여, 인지건강디자인의 도입이 노인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해야겠어.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중에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부분을 어근이라고 하는데, 어근이 두 개 이상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는 형성 방법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따라 어근을 결합한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논밭',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한 '굳은살',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의 어간이 결합한 '스며들다' 등은 국어 문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배열법으로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반면에 용언의 어간이 명사에 직접 결합한 '덧밥',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 '오르내리다' 등은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없는 단어 배열법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이러한 단어 합성법은 중세 국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바느실(바느실)',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한 '저르니(젊은이)',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의 어간이 결합한 '니러셔다(일어서다)' 같은 통사적 합성어와 '빌떡다(빌어떡다)'와 같이 용언의 어간과 어간이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가 그러한 예이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 '뛰다'와 '놀다'의 합성어 형태로는 비통사적으로 결합한 '뛰놀다' 하나만 확인되고 있는데 현대 국어에는 비통사적 합성어인 '뛰놀다'와 통사적 합성어인 '뛰어놀다'의 두 가지 합성어 형태가 모두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현대 국어에는 하나의 합성어 형태로만 쓰이는 단어가 중세 국어에는 두 가지 합성어 형태로 모두 쓰였던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11. [A]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	결합 방식	합성어의 종류
①	어깨동무	명사 + 명사	통사적 합성어
②	건널목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통사적 합성어
③	보살피다	용언의 연결형 + 용언의 어간	통사적 합성어
④	여닫다	용언의 어간 + 용언의 어간	비통사적 합성어
⑤	검버섯	용언의 어간 + 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12.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합성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賈餗이 슬허 눈믈 내요되	<번역 소학>
[현대 국어] 가속이 슬퍼 눈물을 흘리되	
(나) 홀기 어울워 즌홀 밍그라	<능엄경언해>
[현대 국어] 홀에 어울러 진흙을 만들어	
(다) 그되 가아 아라듣게 니르라	<석보상절>
[현대 국어] 그대가 가서 알아듣게 말하라.	
(라) 그지업슨 소리 世界에 숫나디 몬흐면	<월인석보>
[현대 국어] 끝이 없는 소리가 세계에 솟아나지 못하면	
(마) 싸하셔 소사나신 ... 菩薩 摩訶薩이	<석보상절>
[현대 국어] 땅에서 솟아나신 ... 보살 마가살이	

- ① (가)의 '눈믈'은 현대 국어의 '눈물'과 같이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즌홀'은 현대 국어의 '진흙'과 달리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 ③ (다)의 '아라듣다'는 현대 국어의 '알아듣다'와 같이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 ④ (라)의 '숫나디'는 현대 국어의 '솟아나다'와 달리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겠군.
- ⑤ (라), (마)를 보니 현대 국어의 '솟아나다'는 중세 국어에서 두 가지 합성어의 형태로 모두 쓰였다고 볼 수 있겠군.

13. <보기>는 표준 발음법 중 '된소리되기'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ㄴ, ㄹ), ㄴ(ㄴ, ㄹ, ㄷ,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ㄴ, ㄹ'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ㄴ, ㄹ'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어간 받침 'ㄹ, 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ㄴ, ㄹ'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ㄴ, ㄹ,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① '국밥'과 '(계란을) 삶고'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② '꽃다발'과 '(그릇을) 훑지만'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③ '(시름) 읊조리다'와 '(죽을) 먹을지언정'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④ '(바닥에) 앉을수록'과 '(몸을) 기댈 곳'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⑤ '(살살이) 훑다'와 '(내가) 떠날지라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14. <보기>의 사례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 지루하다 못해 졸리다.
- ㉡ 나는 자전거를 {못 탄다/타지 못한다}.
- ㉢ 컴퓨터를 너무 오래하지 {*않아라/*못해라/마라}.
- ㉣ 시간이 {*못 넉넉하다/넉넉하지 못하다}.
- ㉤ [그녀는 결코 거짓말을 {*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히 거짓말을 {했다/하지 않았다}.

*는 비문법적 표현임.

- ① ㉠을 보니, '못하다'는 앞말의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어 뒷말을 부정하기도 하는구나.
- ② ㉡을 보니, 부정 표현은 부정 부사를 통해 실현되기도 하고, 부정 용언을 통해 실현되기도 하는구나.
- ③ ㉢을 보니, 명령문의 부정 표현에서는 '않다'나 '못하다'가 아니라 '말다'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 ④ ㉣을 보니,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부정 부사 대신 부정 용언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 ⑤ ㉤을 보니, 부사에 따라 반드시 부정 표현이 함께 쓰여야 하는 경우가 있겠구나.

15. <보기>는 수업의 한 장면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바르게 짚은 것은?

<보 기>

선생님: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요. 이때, 'ㄱ, ㄷ, ㅌ'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습니다.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으며, 'ㄹㄹ'은 'll'로 적지요.

그럼 아래의 표기 일람을 참고할 때, '독립문'과 '대관령'의 로마자 표기는 어떻게 될까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g, k	n	d, t	r, l	m	b, p	ng
ㅅ	ㅈ	ㅊ	ㅌ	ㅍ	ㅍ	
ae	yeo	o	wa	u	i	

- | 독립문 | 대관령 |
|--------------|---------------|
| ① Dongnimmun | Daegwallyeong |
| ② Dongnimmun | Daegwalryeong |
| ③ Dongrimmun | Daegwallyeong |
| ④ Dongrimmun | Daegwanryeong |
| ⑤ Doknipmun | Daegwanryeong |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 작품을 현실의 모방이나 재현으로 보며 감상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관점과 달리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 자체를 진리가 드러나는 통로로 보았다. 하이데거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 존재자로, 그러한 존재자를 존재자답게 만드는 것을 ㉡ 존재로 규정하고, 예술 작품의 진리는 존재자의 존재가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았다. 특히 하이데거는 존재자 중 인간이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을 ‘도구’로 규정했는데, 예술 작품은 단순히 도구를 정확히 모사해서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예술 작품은 도구의 존재를 드러냄에 따라 존재자의 비은폐성을 이끌어 내어, 존재자의 본질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미학적 관점을 고흐의 「구두」라는 작품을 통해 설명한다. 고흐의 작품 속에서 구두라는 존재자의 존재는, 구두 자체의 외형이나 용도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두가 딛고 있는 터전, 그리고 그 구두가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삶 전체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고흐의 작품 속 구두의 ‘존재’가 그것을 신고 다녔을 어느 농부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드러내게 된다고 생각했으며, 구두에 담긴 농부의 고단하면서도 소박하고 경건한 삶 전체가 구두라는 존재자에 은폐되었던 ‘진리’라고 여긴 것이다. 이와 같이 하이데거는 예술 작품 속 도구의 존재가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예술의 본질인 진리가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작품 속 구두가 실제와 얼마나 똑같은지 또는 그것을 예술가가 어떤 의도로 창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고흐, 「구두」

하지만 미국의 미술사학자 샤피로는 하이데거가 아무런 검증 없이 고흐의 작품 속 구두를 농부의 것이라 단정 지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주변 화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흐는 중고 시장에서 산 구두를 신고 맑은 날이든 껏은 날이든 주변의 언덕을 가로질러 외곽 도로를 누볐고, 그 구두가 완전히 일그러진 다음에 그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고 한다. 따라서 샤피로는 그림 속 구두가 고흐 자신이 신었던 구두를 모델로 삼아 창작된 것이라 보았다. 이처럼 샤피로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림 속 구두의 소유주를 찾아 특정 주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는 이러한 샤피로의 주장이 예술 작품을 대상의 모방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데리다가 볼 때 하이데거에게 중요했던 것은 구두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구두에 은폐되어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 데리다는 두 사람의 해석에서 유사성을 읽어 낸다. 두 사람 모두 그림 속 구두를 ‘한 켤레’로 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림 속 구두는 오른쪽 것이 훨씬 커 보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볼수록 신고 다닐 수 있는 구두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두 사람은 왜 거기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데리다는 두 사람 모두가 구두를 ‘한 켤레’로 규정함으로써, 구두에 대한 그 밖의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보았으며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데리다는 예술 작품의 진리는 작품 속에 결코 하나로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고흐의 작품이 하이데거를 만나 하나의 진리를 열어 주듯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진리를 열어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데리다는 하이데거처럼 근원적 진리로의 회귀를 원하지 않는다. 데리다는 예술 작품이 열어 주는 다양한 해석들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이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생성해 내는 예술 작품의 끊임없는 미적 창조력, 바로 거기에 예술 작품의 진리가 놓여 있다고 본 것이다.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예술 작품의 창작 방법을 유형화하고 있다.
- ② 모방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여 절충하고 있다.
- ③ 예술 작품 속 전통적 가치의 전승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 ④ 예술 작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여 예술 작품의 구성 원리를 밝히고 있다.
- ⑤ 여러 학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예술 작품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17.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 작품의 목적은 ㉠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있다.
- ② 예술 작품 속 ㉠의 본질은 실용적 목적에 의해 드러난다.
- ③ 예술 작품 속 ㉡은 현실과의 유사성을 통해 파악된다.
- ④ 예술 작품 속 ㉠이 실제 사용되는 모습을 관찰하여 ㉡을 파악한다.
- ⑤ 예술 작품 속 ㉡이 드러나면서 ㉠의 본질이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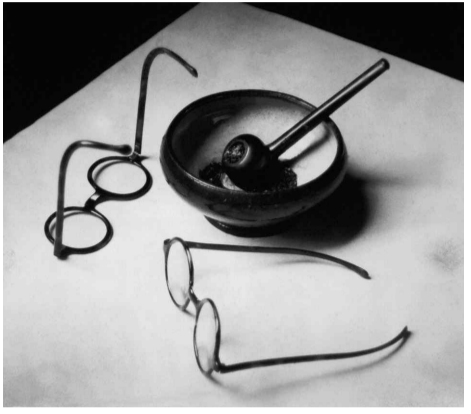
18.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을 향유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해석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 ② 작품에 대한 다양한 감상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 ③ 작품의 대상을 구성 요소별로 분해하여 해석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 ④ 직관적인 연상 과정을 통해 작품의 진리를 파악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 ⑤ 작품에 대한 해석을 고정된 관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세계적인 사진작가 앙드레 케르테즈는 화가 몬드리안의 초상 사진을 촬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몬드리안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테이블에 놓인 화가의 안경과 파이프, 재떨이를 촬영한 후 “이것이 몬드리안의 초상입니다.”라고 말했다.



앙드레 케르테즈,
「몬드리안의 안경과 파이프」

- ① 하이데거는 케르테즈의 사진 속 ‘안경’과 ‘파이프’보다는 작가의 촬영 의도에 주목했을 것이다.
- ② 하이데거는 케르테즈의 사진 속 ‘안경’과 ‘파이프’가 몬드리안의 삶의 궤적을 드러낸다고 여겼을 것이다.
- ③ 샤피로는 케르테즈의 사진 속 ‘안경’과 ‘파이프’가 몬드리안의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을 것이다.
- ④ 샤피로는 케르테즈의 사진 속 ‘안경’과 ‘파이프’를 감상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해석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⑤ 데리다는 케르테즈의 사진 속 ‘안경’과 ‘파이프’가 몬드리안의 삶으로만 해석되는 점을 경계했을 것이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나타난 데리다의 예술에 대한 입장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데리다는 언어의 의미가 다른 개념과의 대비, 즉 교차 속에서 생성된다고 생각했다. 한 언어 체계가 큰 숲이고 각각의 단어의 의미가 나무라면, 단어의 의미는 서로 다른 모양의 나무를 비교함으로써 드러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의미 또한 수많은 대안적 의미 속에서 순간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의미의 차이로 인해 언어의 고정 불변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① 언어에서 고정 불변한 의미를 찾아내기란 불가능하다고 본 것처럼 예술 작품에 대한 유일한 해석이 어렵다고 보았겠군.
- ② 언어의 의미가 다른 개념과의 대비를 통해 생성되듯이 예술 작품도 다른 작품과의 대비를 통해 진리가 드러난다고 보았겠군.
- ③ 언어 체계 속에서 단어의 의미가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예술가들의 관계 속에서 예술 작품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겠군.
- ④ 언어의 의미가 서로 다른 의미의 차이로 인해 드러나는 것처럼 다양한 시각을 통해 예술 작품의 진리는 확정된다고 보았겠군.
- ⑤ 언어의 의미가 수많은 대안적 의미 속에서 순간적으로 선택된 것처럼 예술 작품의 진리 또한 예술 작품 속에 반영된 다양한 현실을 선택적으로 모사한다고 보았겠군.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부제…….”

나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강릉에서 올라올 때부터 내내 입속으로 되뇌며 연습한 말이었다.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라는 뜻을 불러야 하고. 이젠 당숙을 그렇게 불러야 하고 그렇게 불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아부제가 놀라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부제…….”

㉠ “…….”

“지가 잘못했어요.”

“언, 언제 완?”

“어제요. 어머니가 아부제 모시고 오라고 해서요.”

“…… 밥은 먹은?”

“야, 내일 온다더니요?”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 편에 니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잔.”

“진지는 드셨어요?”

“거게서 먹기는 해두 니가 뭘 안 먹었음 같이 먹을라구…….”

“말은요?”

“뒤꼍에 매났는기 이젠 그것두 힘을 못 써서…….”

“아부제…….”

“…….”

“가요, 집에…….”

“오냐, 가야제. 니가 왔다 해서 다 챙겨 내려왔는기. 집은 다 켜한?”

“야.”

“느 숙모도?”

“야.”

아부제는, 나는 빈 몸으로 오고 아부제는 말을 가져왔으니 나는 차를 타고 내려가고 아부제는 내일 산에서 간조패들이 내려오면 돈을 마저 받은 다음 말을 끌고 내려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나도 아부제하고 함께 내려가겠다고 했다. 가방까지 들고 나왔는데도 그날 하루 더 영자 누나 방에서 잠을 잤다. 아부제는 어디서 잠을 잤는지 모른다. 다음 날 영자 누나가 출근한 다음 아부제가 말하던 대로 열 시쯤 진부옥으로 다시 갔을 때 아부제는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한 얼굴로 멀끔하게 앉아 있었다. 부엌 쪽을 살펴도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 “니 나하구 대화 가지 않으렌?”

“거긴 어딘데요?”

“차를 타든 된다. 거긴 여기보다 큰 전방들이 많으니 니 뭐 사구 싶은 것두 사구…….”

그날 아부제는 내게 시계를 사 주었다. 내가 고른 것보다 아부제 마음에 드는 게 더 비쌌는데 비싼 그것을 사 주었다. 큰 형은 시계가 있어도 고등학교 3학년인 작은형은 아직 시계가 없었다. 라디오를 틀면 매시간 아홉 시를 알려드립니다, 열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는 오리엔트 야광 손목시계였다. 그 외에도 내 옷과 숙모 옷 몇 가지를 더 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의 옷가지도 샀다. 그리고 거기서 먹는 점심은 내가 내 식대로 아부제 것과 내 것을 시켜 먹었다. 아부제한테 내가 컸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봉평으로 돌아오니 해가 저물고 있었다. 아부제는 진부옥에서 돈만 받으면 떠날 준비를 하고 흥정산 간조패들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저녁을 먹은 다음에 내려왔다.

㉠ “야, 느들 장래 우리 집 대주 봐라. 우리 아들 얼굴 얼마 나 흰한가 한번 보란 말이다. 느 아들들이면 이만한 나이에 혼자 애비 찾아오겠나?”

아부제는 그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은 다음 길을 떠나기 전 몇 잔 술을 마시며 연신 내 자랑을 했다.

(중략)

“나 내려가면 이제 아부제 집에 가서 살려구 해요.”

“우리 집에?”

“야.”

㉡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구 시키든?”

“아뇨, 지 마음으로도요.”

“니 마음으로?”

“야, 그래서 올라올 때 하생골 어머니한테 내 방 하나 치워 놓으라고 했어요.”

“수호야.”

“야.”

“아부제는 고맙다, 무슨 말인 줄 알제?”

“야.”

㉢ “그래, 내려가든 나두 이 짐승 치우지 뭐. 니 싫어하는 걸 계속할 게 뭐 있겐.”

“.....”

“혀, 이놈이 말귀 알아듣나, 절 치운다니까 대가리를 흔들게.”

“안 치워도 나 아부제 집에 가 살아요.”

“그래, 치우지 뭐. 치울 거야. 이제 이거 힘두 제대루 못 써 사람 망신시키는 거, 늑어서 고집두 늘구.....”

그날 아부제와 나는 온 하늘과 온 산이 붉게 동틀 무렵 하생골 집에 닿았다. 그러나 그날 밤길에도 그랬고, 먼저 살던 집에서 아부제 집으로 살림을 옮기듯 책상과 책가방, 입던 옷가지들과 내가 쓰던 물건들을 옮겨 온 후에도 끝내 말과는, 그리고 아부제가 그것을 끄는 것과는 화해가 되지 않았다. 예전보다 덜 부끄럽다고 해도 그랬다. 그때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동네에서 아이들과 싸우다가도 ‘노새집 양재새끼’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으로 느끼던 열세 살의 소년이었다.

그 말은 내가 중학교 3학년일 때까지 집에 있었다. 내가 저를 뺨박하고 서러움 줄 때 그는 이미 늑어 있었다. 그가 죽던 마지막 모습도 그랬다. 말굽을 박았는데 공사장에서 벽돌을 내릴 때 땅에서 바로 선 대못을 밟아 오른쪽 앞다리부터 못 쓰게 되더니 한 해 겨울을 한쪽 다리를 늘 구부린 채 서서 앓다가 어느 날 배를 땅에 대고 만 것이었다. 알리진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고 시내의 마부들이 마차를 끌고 와 죽은 그를 싣고 내려갔다. 아부제는 따라가지 않았다. 마부들이 그림 저녁때 고기라도 보낼까, 하고 묻자 아부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남몰래 감추는 아부제의 눈물을 보았다. 한지붕 아래에서 사는 동안 그는 내게 참으로 많은 설움과 눈총과 미움을 받았다.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는데도 그랬다. 아마 그가 죽어 정말 하늘의 은별이 되었다 해도 나는 앞으로도 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그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 원고에 나는 그의 이야기를 쓰지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그의 슬픈 생애에 대해 제대로 글을 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린다.

- 이순원, 「말을 찾아서」

2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아부제’ 집에 가서 살기로 결심한다.
- ② ‘나’는 ‘아부제’와 함께 떠나기 위해 봉평에서 하룻밤을 더 묵기로 한다.
- ③ ‘아부제’는 대화에서 ‘나’와 점심을 시켜 먹으며 고마움에 눈물을 흘린다.
- ④ ‘아부제’는 ‘나’가 봉평에 온 사실을 ‘나’와 대면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한다.
- ⑤ ‘아부제’는 힘을 못 쓰는 말 때문에 강릉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다.

2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예상하지 못했던 호칭을 갑작스럽게 듣게 되어 선뜻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② ㉡: 큰 전방들이 많이 있는 ‘대화’에 가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사 주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다.
- ③ ㉢: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장래 우리 집 대주’라고 밝히며 자신에게도 남에게 내세울 아들이 있음을 자랑하고 있다.
- ④ ㉡: ‘나’의 결정이 ‘어른들’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⑤ ㉢: ‘이 짐승’에 대한 ‘나’의 진짜 속마음을 파악하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의도적으로 꺼내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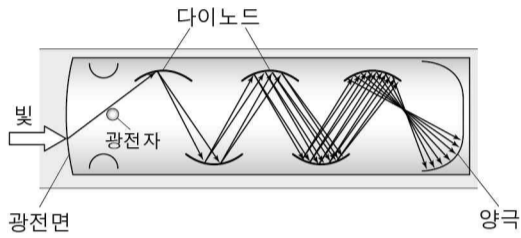
「말을 찾아서」는 ‘나’를 양자로 들이고자 하는 당숙과 이를 거부하는 ‘나’가 갈등을 빚다가 화해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른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루어진 양자 입양에 반발하였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당숙은 집을 떠나 버린다. 죄책감을 느낀 ‘나’는 당숙을 찾아가 사과하고 그를 ‘아부제’로 받아들이지만 노새와 당숙의 노새 끄는 일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어린 시절의 이와 같은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상처로 남게 되며 ‘나’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된다.

- ① 당숙의 집으로 ‘내가 쓰던 물건들을 옮겨 온’ 것은 ‘나’가 양자 입양을 수긍하고 당숙과 화해했음을 보여 주는 행동이겠군.
- ② ‘아부제가 그것을 끄는 것’과 ‘노새집 양재새끼’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양자가 된 후에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겠군.
- ③ 당숙의 양자가 된 다음에도 노새에게 ‘많은 설움과 눈총과 미움’을 준 것은 ‘나’가 ‘노새’와 관련된 당숙의 삶까지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④ ‘내가 누리는 것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다고 여기는 것은 ‘노새’의 희생으로 인해 ‘나’가 당숙을 ‘아부제’로 받아들여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성인이 되어서도 ‘나’가 원고에 ‘그의 이야기를 쓰지 못’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기 때문이겠군.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재 시 불꽃에서 방사되는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적외선 영역에 ㉠ 걸쳐서 나타난다. 불꽃 감지기는 불꽃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복사 에너지 중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특정 파장을 검출하여 이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탄소를 함유한 가연물이 연소할 경우 자외선은 약 $0.2\mu\text{m}^*$ 부근의 파장에서, 적외선은 약 $2.7\mu\text{m}$ 와 약 $4.3\mu\text{m}$ 부근의 파장에서 최대 방사 강도를 나타내는데, 불꽃 감지기 내부의 센서는 최대 방사 강도에 해당하는 불꽃의 파장을 감지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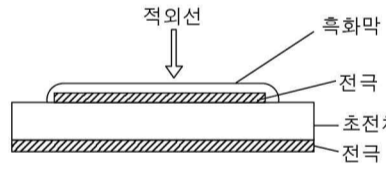
자외선 불꽃 감지기의 센서는 광전자 증배관에서 전자를 증배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광전자 증배관은 진공 상태의 유리관으로, 음극과 양극, 그리고 그 사이에서 2차 전자*를 방출하는 전극인 다이노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빛이 입사하여 광전면인 음극에 도달하면 음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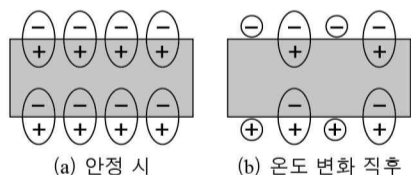
<그림 1> 광전자 증배관

표면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는데, 이를 광전 효과라 한다. 방출된 광전자는 집속전극에 의해 가속된 후 제1 다이노드에 충돌한다. 제1 다이노드에서는 충돌에 의해 보다 많은 전자가 방출되며, 방출된 전자들은 다시 가속되어 제2 다이노드에 충돌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배되어 양극에 도달하기 때문에 미약한 빛이 입사하여도 상당히 큰 신호 전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자외선 불꽃 감지기는 특정 파장에 해당하는 미세한 자외선의 발생 유무도 감지할 수 있어 화재 상황에 ㉡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적외선 불꽃 감지기에는 일반적으로 초전형 센서와 특정 적외선 파장대의 빛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광학 필터가 사용된다. 광학 필터를 통과한 적외선은 센서 표면의 열 흡수막인 흑화막에 의해 초전체의 온도를 상승시킨다. 초전체는 온도가 변하면 분극이 변하는 물질이다. 분극이란 <그림 2-2>의 (a)와 같이 음전하와 양전하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마주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특히 외부의 압력이나 전기장의 영향 없이도 분극이 유지되는 현상을 가리켜 자발 분극이라고 한다. 초전형 센서의 초전체로는 자발 분극 특성을 ㉢ 가지는 물질인 강유전체가 주로 활용된다. 초전형 센서에 적외선이 입사하면 강유전체의 온도가 상승하여 자발 분극의 크기가 감소하고, 그 결과 <그림 2-2>의 (b)와 같이 전기적인 평형이 무너져 결합할 상대가 없는 부유 전하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유 전하가 이동함에 따라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인 기전력이 발생함으로써 센서는 초전체와 위아래로 맞닿아 있는 전극으로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 화재가 일어난 것을 감지하게 된다.



<그림 2-1> 초전형 센서



<그림 2-2> 초전체의 분극 변화

한편 불꽃 감지기의 감지 가능 거리는 화염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화재원이 감지기로부터 더 멀리 ㉣ 떨어져 있으면 감지

기가 감지할 수 있는 화염의 최소 크기 또한 그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야 한다. 만약 어떤 불꽃 감지기가 20m 거리에 있는 0.1m^2 크기의 화염을 감지한다고 했을 때, 화재원을 40m 위치에 ㉤ 두게 되면 감지기가 감지할 수 있는 최소 화염의 크기는 0.4m^2 이며, 화재원을 10m 위치에 두게 되면 0.025m^2 의 화염의 크기에도 경보를 울린다는 의미이다.

* μm : 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미터.

* 2차 전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전자가 기체 분자나 고체와 부딪힐 때 생기는 전자.

24.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광전자 증배관의 광전면에서 방출된 광전자는 집속전극에 의해 가속된다.
- ② 적외선 불꽃 감지기가 불꽃을 감지하면 내부의 음전하와 양전하 간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 ③ 광전자 증배관의 제2 다이노드에서 방출되는 전자 수는 제1 다이노드에서 방출되는 전자 수보다 더 많다.
- ④ 불꽃 감지기는 불꽃 복사 에너지 중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특정 영역의 파장을 감지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알려준다.
- ⑤ 30m 거리에 있는 0.1m^2 크기의 화염을 감지할 수 있는 불꽃 감지기는 15m 거리에 있는 0.03m^2 크기의 화염도 감지할 수 있다.

25. 밑글의 광전자 증배관을 바탕으로 <보기>의 'UV 트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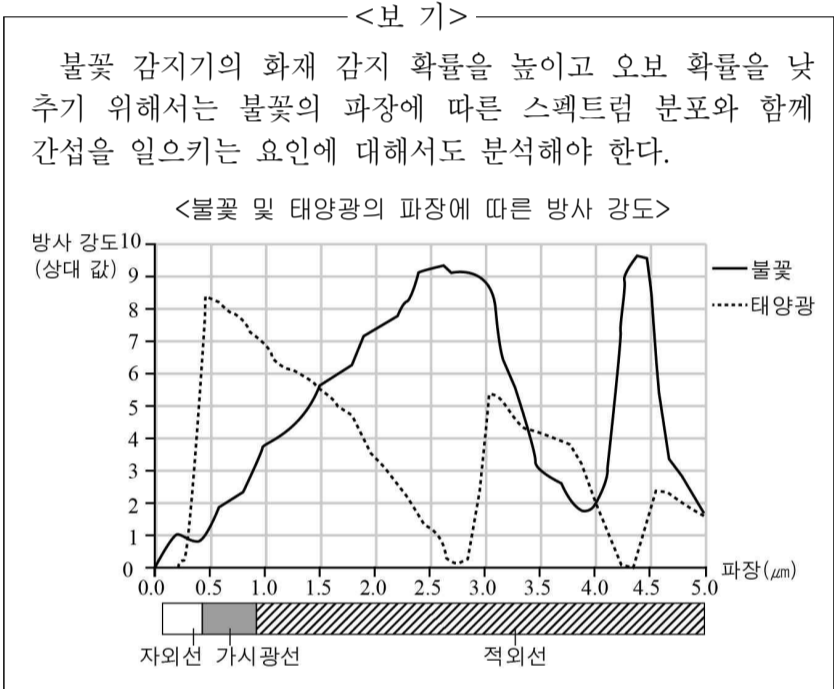
<보 기>

자외선 불꽃 감지기의 센서로는 'UV 트론'을 주로 사용한다. 자외선이 'UV 트론'의 유리관을 통과하여 음극에 도달하면 광전 효과에 의해 전자가 방출된다. 이것은 양극에 도달할 때까지 유리관 속을 채운 가스 분자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며 2차 전자를 다량으로 발생시킨다. 이러한 현상의 반복으로 음극과 양극 사이에는 큰 전류가 급속도로 발생된다.

- ① 광전자 증배관과 달리 'UV 트론'은 전자를 증배할 때 가스 분자를 활용하는군.
- ② 광전자 증배관과 달리 'UV 트론'은 음극에서 방출된 2차 전자를 활용하여 불꽃의 파장을 감지하는군.
- ③ 광전자 증배관과 'UV 트론'은 모두 전자의 충돌 과정을 통해 큰 전류를 발생시키는군.
- ④ 광전자 증배관과 'UV 트론'은 모두 광전 효과를 활용하여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키는군.
- ⑤ 광전자 증배관과 'UV 트론'은 모두 전자를 증배함으로써 미세한 자외선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군.

26. 윗글의 '초전형 센서'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초전체에서 부유 전하가 발생하지 않으면 전기적인 신호를 보낼 수 없다.
 - ② 외부 자극에 의해 초전체의 자발 분극 특성이 사라지는 순간 기전력 또한 소멸된다.
 - ③ 흑화막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선별해 넘으로써 초전체의 표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④ 전극을 통해 강유전체에 지속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강유전체의 자발 분극 특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 ⑤ 초전형 센서는 불꽃 감지기 외부의 온도 변화를 적외선 파장으로 변환한 뒤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보내는 장치이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자외선 불꽃 감지기는 불꽃의 최대 방사 구간인 4.0 ~ 4.5μm의 파장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해야 한다.
- ② 자외선 불꽃 감지기는 태양광의 방사 강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0.4μm 부근의 파장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해야 한다.
- ③ 적외선 불꽃 감지기는 불꽃과 태양광의 방사 강도가 동일한 지점들의 파장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하면 오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 ④ 적외선 불꽃 감지기는 태양광의 방사 강도가 0에 가까운 특정한 파장만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하면 오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 ⑤ 적외선 불꽃 감지기는 불꽃의 복사 에너지 중 약 3.4 ~ 4.0μm에 해당하는 파장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센서를 사용하면 오보 확률을 낮출 수 있다.

28. ㉠~㉣의 문맥적 의미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날은 열 시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다.
- ② ㉡: 그는 행동이 빠르고 민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③ ㉢: 두 나라는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했다.
- ④ ㉣: 식당은 학생회관과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 ⑤ ㉤: 소화기는 반드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한다.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은 정월(正月)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 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 고향의 내 집에 있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언만
 나는 오늘 때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혼자 외로히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토막으로 외로히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니 먼 외진 거리에 한고향 사람의 조고마한 가
 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있는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먹으리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으레히 그
 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그 어니 한고향 사람의 ㉡ 주막이나 반관(飯館)을 찾
 어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宵)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히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아, 이 정월(正月) 대보름 명절인데
 ㉢ 거리에는 오독도기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 소리 뽀뽀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
 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사람
 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나)

그녀의 함석집 귀퉁배기에는 늙은 고욤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방고래에 불 들어가듯 고욤나무 한 그루에 눈보라가 며칠째
 밀리며 밀리며 몰아치는 오후
 그녀는 없다, 나는 ㉣ 그녀의 빈집에 홀로 들어선다
 물은 얼어 끓어지고, 솥검댕이 아궁이는 켜하다
 저 먼 나라에는 춥지 않은 ㉤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이 세상 저물 때 그녀는 바람벽처럼 서럽도록 추웠으므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식은 재를 끌어내 그녀가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것

저 먼 나라에는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한 그녀의 방이 있는지 모른다

저 먼 나라에서 그녀는 오늘처럼 밖이 추운 날 방으로 들어서며 맨 처음 맨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쓸어볼지 모르지만, 습관처럼 그럴 줄 모르지만

이제 그녀를 위해 나는 그녀의 집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낸다

그녀는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

- 문태준, 「가재미 3 - 아궁이의 재를 끌어낸다」

(다)

시에서 장소는 실재하는 물리적 공간, 또는 형상화된 상상의 공간으로서 화자의 경험이나 감정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해석되는데, 특정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이러한 정서를 ‘장소감’이라 한다.

장소는 안과 밖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자는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장소의 안 또는 밖에 자리하게 된다. 화자가 특정 장소의 안에 있다고 느끼는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장소와 화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 내는데, 이렇게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장소감을 ‘장소애’라 일컫는다. 한편, 화자가 장소의 밖에 있다고 느끼는 소외감은 화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장소감을 갖게 만든다. 이때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소외감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비롯되는데, 과거에 진정한 장소애를 경험했다가 자의든 타의든 이를 잃게 되어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특정한 장소감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아직 장소에 익숙하지 않아 특정 장소에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그 다른 하나이다.

시에 나타난 화자의 장소감은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과 내면 의식, 지향점 등에 대해 알게 해 준다. 또한 장소의 시간적 배경이나 그 장소에 놓인 어떤 특정 대상들은 이 [A] 러한 화자의 장소감, 즉 그 내면의 정서를 강화나 확장, 또는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과거에서 현재로, 혹은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2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 ② 특정한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여 시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특정 색채 이미지로 탈속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는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⑤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상이 집약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30. (다)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 안에 소속되어 있던 곳으로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한 장소라 할 수 있다.
- ② ㉡은 화자가 과거에 두보나 이백이 겪었던 상황을 경험한 곳으로서 화자에게 장소애를 유발하는 장소라 볼 수 있다.
- ③ ㉢은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분위기가 조성된 곳으로서 공감함을 느끼지 못하는 화자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라 볼 수 있다.

④ ㉣은 과거에 존재했던 그녀가 현재에는 부재하는 곳으로서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⑤ ㉤은 화자의 내면 의식이 만들어낸 곳으로서 그녀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투영된 상상의 장소라고 볼 수 있다.

31. [A]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의 나라’에서 맞이하는 ‘대보름 명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타관에서 느끼는 화자의 소외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어.
- ② ‘마른 물고기 한토막’은 ‘일가친척들’과 함께한 고향에서의 경험과 연결되어 화자가 현재의 장소에서 느끼는 결핍감을 심화시키고 있어.
- ③ ‘한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은 화자 내면의 지향점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현재의 장소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장소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
- ④ ‘떡국’은 화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외로움을 위로해 주는 동시에 그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시키기도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⑤ ‘원소’는 화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다른 대상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매개로서 화자의 장소감을 다른 대상으로까지 확장하여 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어.

3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재미 3」은 문태준의 ‘가재미’ 연작 중 하나이다. 「가재미 1」은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임종 전 모습을, 「가재미 2」는 임종 후 장사지내는 모습을, 「가재미 3」은 어머니의 빈집을 다시 찾아온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가재미 3」에서 화자는 ‘그녀’를 위해 ‘빈집’에 남겨진 아궁이의 재를 모두 끌어내고 있다. 이는 이승에서의 चु고 힘들었던 기억을 모두 없애으로써 어머니의 영혼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슬픔도 함께 비워 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행위로 볼 수 있다.

- ① ‘없다’, ‘홀로’, ‘헹하다’의 시어에는 그녀가 부재하는 ‘빈집’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한 정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며칠째 눈보라를 맞고 있는 ‘늙은 고욤나무’처럼 서럽도록 추웠던 과거 그녀의 삶의 모습은 ‘바람벽’에 비유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식은 재를 끌어내어 ‘불의 감각을 잊도록 하는 것’은 그녀가 이승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잊기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군.
- ④ 화자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눈보라조차 메밀꽃처럼 따뜻’했다고 추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녀를 위해’ 재를 끌어낸다고 말하는 것이겠군.
- ⑤ ‘나로부터도 자유로이 빈집’이 되었다는 것은 재를 모두 끌어냄으로써 그녀의 아픔은 물론 그녀와 관련한 자신의 슬픔까지도 모두 비워 내고자 하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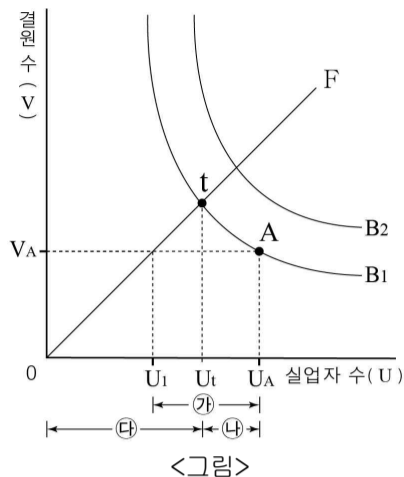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 활동 인구’와 육아, 가사, 취학,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한다. 경제 활동 인구는 현재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주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로 나뉜다.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 ‘실업률’은 국가 경제를 드러내는 ㉡ 지표의 하나로, 보통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 상황이 매우 좋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사람을 취업자로 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부업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도 모두 취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능력이 있으나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인 ‘구직단념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률만으로는 정확한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노동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 ‘고용률’을 더 중시하는 ㉣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에서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으면 실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에 따른 실업 형태를 ㉤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실업은 크게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요 부족 실업이란 어떤 경제의 노동력에 대한 총수요가 전체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며 그것의 단기적 현상이 경기적 실업이다. 즉, 경기적 실업이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인원 감축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인 것이다. 비수요 부족 실업에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그리고 계절적 실업이 있다.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들이 이어나 이직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고용 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으로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 수준만큼 나타난다. 구조적 실업은 빈 일자리와 실업이 ㉥ 공존하더라도 생산 설비 자동화와 같은 기술 혁신에 따라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부족하거나 노동자의 지역 간의 이동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구조적 실업은 노동력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노동자가 갖추지 못하면 사라지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계절적 실업이란 농림·어업, 관광업 등에서 특정 계절에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계절의 변화로 인해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실업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실업의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빈 일자리와 실업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베버리지 곡선을 활용하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에서 가로축은 실업자 수(U)를, 세로축은 충원되지 않은 빈 일자리 수인 결원 수(V)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두 가지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것은 결원 수가 감소하면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그 역도 또한 성립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의 원점에서 45도로 나간 직선 F는 베버리지 곡선 B₁과 t에서 만나고 있다. 이 t는 실업자 수와 결원 수가 동일해 모든 실업자가 고용될 수 있는 완전 고용 상태에 해당한다. 현재



<그림>

노동 시장의 상황을 A라 할 때, 수요 부족 실업의 경우 노동자 수에 비해 빈 일자리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U_A에서 V_A를 빼면 A에서의 수요 부족 실업자 수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V_A는 U_t과 동일하므로 결국 U_A에서 U_t을 뺀 ㉡를 수요 부족 실업자 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 부양 대책으로 수요 부족 실업을 ㉤ 해소하여 결원 수를 증가시키더라도 B₁의 완전 고용 수준인 t에 대응하는 U_t까지만 실업자 수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U_A에서 U_t를 뺀 ㉣이 되고 경기가 좋아져서 취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에 해당하는 실업자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과 같은 비수요 부족 실업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실업자 수와 결원 수가 동시에 증가하면 B₁에서 B₂로 베버리지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는 노동 시장에서 결원 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실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노동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정도가 높아져 비수요 부족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베버리지 곡선을 활용하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노동 가능 인구: 노동력의 관점에서 군인과 수감자를 제외하고 경제 활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의 인구.

3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찰적 실업과 계절적 실업은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경기적 실업은 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수요 부족 실업이다.
- ③ 일할 의사가 없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베버리지 곡선을 통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할 수 있다.
- ⑤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고려하면 고용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3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육아로 인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에 반영된다.
- ②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8시간만 일을 한 사람은 ㉢에 반영되지 않는다.
- ③ 이직을 위한 퇴직자가 증가하면 ㉠은 감소하고 ㉢은 증가한다.
- ④ 취업 준비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 ㉠은 감소하고 ㉢은 증가한다.
- ⑤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은 증가하고 ㉢은 감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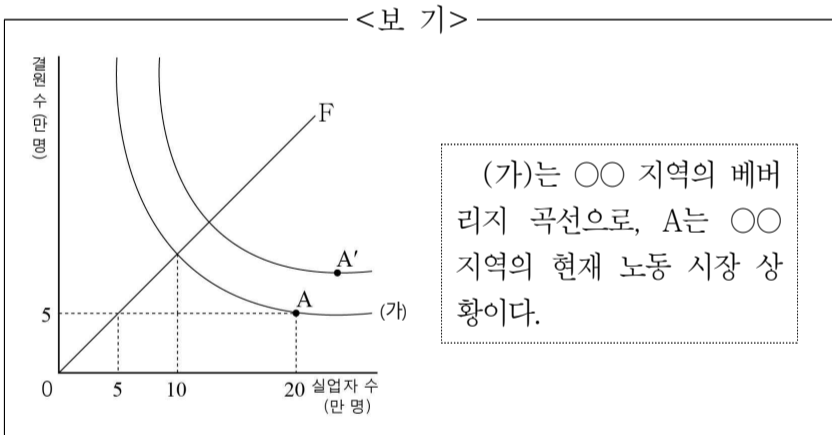
35. <보기>의 상황에 나타난 실업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지역은 대표적 산업인 제화업의 호황으로 6%p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로 인한 동반 성장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고용 수요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올해 □□ 제화에서 노동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가죽 재단과 접착 공정에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면서 재단과 접착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 3천여 명이 실직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올해 △△ 지역의 실업률이 10%p 이상 증가하였다.

- ① 과도한 설비 투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정부는 □□제화에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 ② △△ 지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제화의 인원 감축으로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정부는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 ③ 계절적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실업이므로 정부는 □□제화에 실업자들을 시기에 따라 고용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 ④ 제화업의 호황에 따라 더욱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자발적 실업이므로 정부는 실업자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 ⑤ □□제화의 제조 방식이 변화하여 발생한 실업이므로 정부는 실업자에게 유용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 교육을 활성화한다.

36.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지역의 경기를 부양시켜 일자리의 수를 증가시키더라도 10만 명의 실업자가 있을 것이다.
- ② ○○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현재의 실업자 수에서 결원 수를 뺀 것이므로 15만 명이다.
- ③ 수요 부족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 지역의 경기를 부양시키면 현재보다 5만 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 ④ 베버리지 곡선은 ○○ 지역의 10만 명에 해당하는 비수요 부족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⑤ ○○ 지역의 노동 시장 상황이 A에서 A'로 이동한다면 노동 시장에서 비수요 부족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37.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지.
- ② ㉡: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 ③ ㉢: 한발 물러나서 어떤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바라봄.
- ④ ㉣: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함.
- ⑤ ㉤: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림.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산(靑山)은 에워 들고 녹수(綠水)는 도라가고
 석양(夕陽)이 거들 썰에 신월(新月)이 소사난다
 안전(眼前)의 일존주(一尊酒)* 가지고 시름 프자 흐노라
 <제1수>

강산(江山)의 눈이 닳고 세로(世路)의 늦치 서니
 어덕 뉘 문(門)의 이 허리 굽닐손고
 일존주 삼척금(三尺琴) 가지고 백년소일(百年消日)호리라
 <제3수>

넉 말도 늙이 마소 늙의 말도 넉 아닌넉
 고산(孤山) 불고정(不孤亭)의 조하 늙는 몸이로쇠
 어디셔 망녕의 손이 검다 세다 흐나니
 <제4수>

〔 옛기제 비즌 술이 다만 세 병(瓶)뿐이로다
 [A] 흐 병(瓶)은 물의 높고 쪼 흐 병(瓶) 피회 노셔
 이 밧기 나쁜 병(瓶) 가지고 달의 논들 엇더리
 <제6수>

생애도 고초(苦楚)흐고 세미(世味)*도 담박(淡泊)흐다*
 흰 술 흐두 잔의 프른 글귀 뿐이로쇠
 옥경헌(玉鏡軒)* 평생행장(平生行狀)이 이 밧기는 업세라
 <제7수>

칠현(七絃)이 냉냉(冷冷)흐니 네 소리는 잇다마는
 종기(鍾期)*을 못 만나니 이 곡조(曲調) 게 뉘 알아
 벽공(碧空)의 일륜명월(一輪明月)이 넉 버진가 흐노라
 <제9수>

- 장복겸, 「고산별곡(孤山別曲)」

* 일존주: 한 통의 술. * 세미: 세상 사는 맛.
 * 담박하다: 멋스럽지 못하다.
 * 옥경헌: 작가 소유의 전각의 이름이며 아호임.
 * 종기: 중국 춘추 시대 인물로 자신의 친구인 백야의 거문고 실력이 뛰어남을 알아봄.

(나)

까치 소리는 반갑다. 아름답게 굴린다거나 구슬프게 노래한 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교 없이 가볍고 솔직하게 짓는 단 두 음절 '깍깍'. 첫 '깍'은 높고 둘째 '깍'은 낮게 계속되는 단순하고 간단한 그 음정(音程)이 그저 반갑다. 나는 어려서부터 까치 소리를 좋아했다. 지금도 아침에 문을 나설 때 까치 소리를 들으면 그 날은 기분이 좋다.

반포지는(反哺之恩)을 안다고 해서 효조(孝鳥)라 일러 왔지만 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좋다. 사랑 앞마당 밤나무 위에 까치가 와서 집을 짓더니 그것이 길조(吉兆)라서 그 해 안변 부사(安邊府使)로 영전(榮轉)이 되었다던가, 서재(書齋) 남창 앞 높은 나뭇가지에 까치가 와서 집을 짓더니 글재주가 크게 늘어서 문명(文名)을 날렸다던가 하는 옛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까치 소리는 반갑고 기쁘다.

나는 까치뿐이 아니라 까치집을 또 좋아한다. 높은 나무 위

에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엉성하게 엮어 놓은 것이, 나무에 그대로 어울려서 덧붙여 놓은 것 같지가 않고 나무 삭정이 그대로 떨어져서 쌓인 것 같다. 그러면서도 소쇄한 맛이 난다. 엉성하게 엮어 놓은 그 어리가 용하게도 비가 아니 샌다. 오직 달빛과 바람을 받을 뿐이다.

나는 항상 이담에 내 사랑채를 짓는다면 꼭 저 까치집같이 소쇄한 맛이 나도록 짓고 싶었다. 내가 완자창이나 아자창(亞字窓)을 취하지 않고 간소한 용자창(用字窓)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정서에서다. 제비집같이 아늑한 집이 아니면 까치집같이 소쇄한 집이라야 한다. 제비집은 양전하고 단아한 가정부인이 매만져 나가는 살림집이요, 까치집은 쾌락하고 풍류스러운 시인이 거처하는 집이다.

비둘기장은 아무리 색스럽게 꾸며도 장이지 집이 아니다. 다른 새 집은 새 보금자리, 새둥지, 이런 말을 쓰면서 오직 제비집 까치집만 집이라 하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의 집에 대한 관념이나 정서를 알 수가 있다. 한국 건축의 정서를 알려는 건축가들은 한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인 듯하다. 요새 고층 건물, 특히 아파트 같은 건물들을 보면 아무리 고급으로 지었다 해도 그것은 ‘사람장’이지 ‘집’은 아니다.

지금은 아침 여덟 시, 나는 정릉 안 숲 속에 자리 잡고 앉아 있다. 오래간만에 까치 소리를 들었다. 나뭇잎들은 아침 햇빛을 받아 유난히 곱게 푸르다. 나뭇잎 사이사이로 파란 하늘이 차갑게 맑다. 그간 비가 많이 왔던 관계로 물소리도 제법 크게 들려온다. 나는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여길 와 본 적이 있었다. 보건 운동을 하러 온 사람, 약물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붐비어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와 보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윽한 숲 속이 한없이 고요하다. 지금이 제일 고요한 시간이다. 까치들이 내 앞에 와서 깡충깡충 뛰어다닌다. 이른바 까치걸음이다. 손으로 만져도 가만히 있을 것만 같다. 그렇게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는 데는 아무 관심이나 의구심도 없이 내 옆에서 깡충깡충 뛰놀고 있다.

나는 일찍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민화(民畵) 하나를 생각한다. 한 노옹(老翁)이 나무 밑에서 허연 배를 내놓고 낮잠을 자는데, 그 배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우뚝 서 있었다. 나는 신기한 그 상상화에 기쁨을 느꼈다. 민화란 어린이와 자유화(自由畵)같이 천진하고 기발한 데가 있어서 저런 재미있는 그림도 그려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저 까치들을 보고 그것은 기발(奇拔)한 상상이 아니요, 사실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 이지봉(李芝峯)이 정호음(鄭湖陰)의 “산과 물이 바람에 소리치며, 강물은 거세게 울먹이는데, 달은 외로이 비쳐 있다.”는 시를 보고 ‘강물이 거세게 이는데 달이 외롭게’라는 건실경(實景)에 맞지 않는다고 폄(貶)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달이 고요히 밝은 밤중에는 물결이 잔잔한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김백곡(金栢谷)이 황강역(黃江驛)에서 자다가 여울 소리가 하도 거세기에 문을 열고 보니 달이 외롭게 걸려 있었다. 그래서 비로소 그 구가 실경을 그린 명구(名句)인 것을 알았다는 시화(詩話)가 있다. 나도 그 민화가 실경인 것은 모르고 기상(奇想)으로만 여겼던 것이다.

그 태고연(太古然)한 풍경의 민화 한 폭이 다시금 눈앞 [B] 에 뚜렷이 떠오른다. 나무 밑에서 허연 배를 내놓고 누워서 잠자는 노옹(老翁), 그 배 위에서 있는 까치 한 마리.

- 윤오영, 「까치」

3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에는 불우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에는 대상을 관조하며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사색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나)에는 현재의 처지를 개선하여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당면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39.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B]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A]는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B]는 대상을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 ③ [A]는 구체적 대상에 빗대어, [B]는 추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④ [A]와 [B]는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연이 지닌 역동적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사물을 매개로 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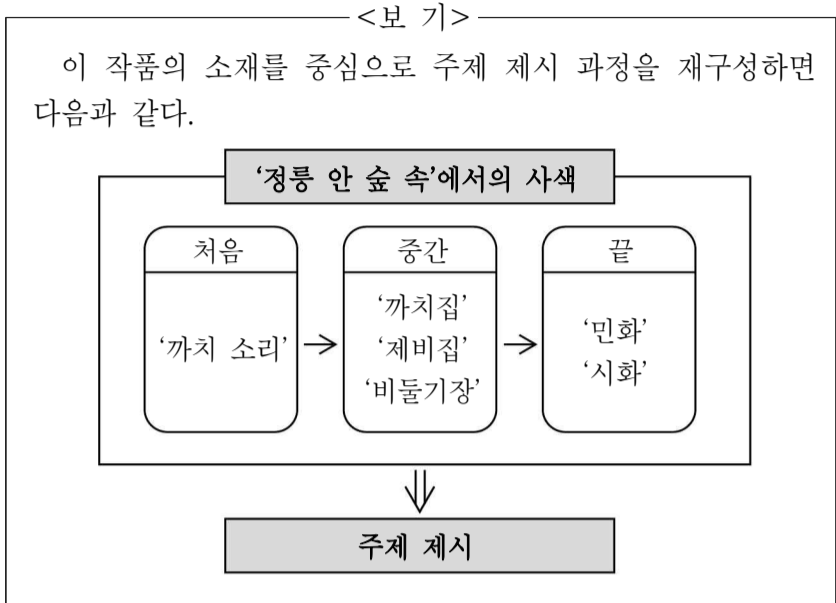
40.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강호한정을 노래한 시조에서 사대부들은 세속적 삶을 멀리하고 물질적 빈곤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정신적 풍요를 누리며 만족해 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고산별곡」에서도 작가는 평생 관직에 몸담지 않고 자연에 은거하며 풍류를 즐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출사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특별히 이루어 놓은 일 없이 만년에 접어들었다는 작가의 안타까움도 작품 속에 담겨 있다.

- ① <제1수>에서 화자는 ‘청산’, ‘녹수’ 등을 통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만년에 느끼는 시름을 ‘일존주’로 달래려 하고 있어.
- ② <제3수>에서 화자는 ‘세로’의 삶과 달리 ‘백년소일’하는 ‘강산’에서의 삶을 긍정하며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 ③ <제4수>에서 화자는 ‘늪’, ‘손’의 평가와 상관없이 ‘고산 불고정’에서 지내는 삶을 통해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어.
- ④ <제7수>에서 화자는 ‘고초’하고 ‘담박’했던 생애를 긍정하면서도 ‘흰 술’에 만족해야 하는 현재의 삶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어.
- ⑤ <제9수>에서 화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일륜명월’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어.

41.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느 날 이른 새벽’의 경험과 대비되는 ‘정릉 안 숲 속’에서의 경험은 이 글의 창작 동기가 되고 있다.
- ② ‘까치 소리’의 ‘기교 없이 가볍고 솔직’한 속성에 주목하여 ‘반갑다’라고 정서를 드러내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 ③ 까치에 이어 ‘까치집’을 떠올리면서 그 특성을 서술하고 ‘소쇄한 맛’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것이 좋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④ ‘까치집’에서 다시 ‘제비집’, ‘비둘기장’으로 소재가 이어지면서 ‘집’과 ‘장’의 차이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민화’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화’에 담긴 상반된 해석들을 비판하면서 글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명 황제가 유문정을 보내시고 날마다 첩서를 기다리시더니 문득 표를 보시고 대경하사 즉시 승상 유기로 대원수를 명하시고 유문정을 도우라 하시니 유 원수가 하직하고 군사를 거느려 문정의 진에 이르니 문정이 반겨 적세 강성함을 이르고 장백 잡기를 의논할 새 유기가 문정더러 말하기를,
 “이제 적병이 강성하여 졸연히 피하기 어려우니 이날 밤에 적병이 잠자기를 기다려 그대 삼만 명을 거느려 적진 우편을 치고 이덕으로 삼만 명을 거느려 적진 좌편을 치고, 나는 삼만 명을 거느려 전면을 치면 제 비록 용맹하나 어찌 당하리오?”
 하고 약속을 정하고 밤을 기다려 방포일성에 사면으로 엄살하니 적장이 불의지변(不意之變)을 만나매 장 원수가 대경하여 급히 이정을 불러 말하기를,
 “아까 천문을 보니 수상에 주성이 살기를 띠어 방위를 떠났으며 북병이 올 줄을 알되 어찌 이 같으리오.”
 하고 풍백(風伯)을 불러 호령하니 풍우대작하며 벽력이 진동하니 명진이 도리어 황급하여 본진으로 돌아올 새 유 원수가 이덕을 거느리고 제쳐 들어가니 백운단이 맞아 싸워 십 합이 못하여 운단이 이덕을 베니 유기가 대로하여 바로 운단을 취하니 이정이 앞을 막아 유기를 치니 유기가 당치 못하여 본진으로 돌아오니 장백, 이정 등이 일시에 엄살하여 유문정을 생금(生擒)하여 가거늘 유기가 급히 본진으로 돌아와 관찰하여 머무니라. 장백이 문정을 잡고 대화하여 못내 즐기더라.

[A] 장백이 장중에서 졸더니 사물간에 철관도사가 이르러 말하기를,
 “너더러 이른 말을 어찌 잊었느냐? 천자는 곧 주 씨거늘 네 비록 옥새(玉璽)를 얻었으나 천명이 내게 있지 아니 하거늘 공연히 민심만 소동케 하니 어찌 해를 면하리오? 하물며 황후는 너의 누이라 골육상잔(骨肉相殘)함을 알지 못하니 어찌 한심치 않으리오?”
 하고 간테없는지라.

[B] 원수가 그 말을 듣고 심히 괴이히 여겨 생각하되,
 ‘내게 과연 누이가 있더니 도적에게 잡히어 갔다가 옥을 볼까하여 소상강에 익사한 지 벌써 십 년이라. 이따금 생각하여 사후나 만남을 원하더니 이제 선생의 가르치심이 약차(若此)하시니 실로 괴이하도다.’
 하였다.

[C] 군중에 호령하여 군사를 쉬게 하고 문정을 잡아들여 서안을 치며 크게 꾸짖기를,
 “내 벌써 원 황제를 잡아 항복 받고 옥새를 가졌거늘 네 거짓 황제를 내고 천병을 항거하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문정이 노하여 꾸짖기를,
 ㉠ “우리 황상이 성신문무(聖神文武)하사 먼저 장안에 들어와 추호를 범치 아니시고 대위(大位)에 오르시며 벌써 국호를 정하시고 장 씨를 취하여 황후를 봉하시니 굳음이 반석같은 거늘, 너는 부질없는 군사를 일으켜 만대에 더러운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빨리 죽이지 무슨 말을 하나뇨?”
 장 원수가 대로하여 즉시 죽이고자 하나 황후가 장 씨란 말을 듣고 선생의 말을 생각하며 노여움을 그치고 아직 진중에 두니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적장이 장 씨라는 소식을 들은 황후는 그를 보려 하고, 이에 명 황제 주원장은 잔치를 열어 장백을 부르코자 한다.

‘승상 유기는 글월을 장 원수께 전하나니 우리는 남쪽에서 군사를 일으켰고 장군은 서쪽에서 군사를 일으킴에 천하 명장이 쫓기를 원하는지라. 무도한 원제를 내치고 창업고자 함은 피차일반이나 하늘이 먼저 주 천자를 피시게 하였으니 실로 임자 있음을 알거니와 명 황제 먼저 장안을 얻으시니 그 공이 크고 장군은 옥새를 취하였으니 또한 큰 공이라. 이따금 황제 대의를 생각하시고 이곳에 대연을 배설(排設)하여 모든 장졸로 그 공을 표하고자 하나니 장군이 만일 혐의치 아닐진대 한번 이르러 즐거이 어떠하뇨?’

장 원수가 글을 끝까지 읽어 본 후 제장과 의논하기를,
 “적진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나를 청하니 무슨 흥계 있음을 알지 못하나 아니 가면 약함을 보임이라. 그러나 어찌 저를 두려워하리오?”

하고 이정으로 군사를 거느려 뒤를 따르라 하고 명진에 이르니 유기가 진문을 크게 열고 장 원수를 맞아 들어가니 양진이 상합하매 살기충천하더라.

명제가 맞아 동서로 나누어 앉으니라.
 이때 황후가 주렴 사이로 자세히 보니 과연 장백이나 신수가 건장하여 어려서 보던 모습이 변하나 성음(聲音)이 익은지라. 반가운 중 눈물 남을 깨닫지 못하더니 홀연 대풍이 일어나 주렴을 거두치니, 장백이 술잔을 받다가 눈결에 황후를 보고 그 얼굴이 누이와 같음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거늘 명제가 그 연고

를 물은대 장백이 탄식하기를,

㉠ “우리 서로 적국 되어 천하를 다투매 사정을 이룰 바 아니로되 소장이 어려서 양친을 여의고 남매 의지하여 지내더니 동리 노고의 흥계에 빠져 외가로 가더니 중로에 도적을 만나 누이를 잃으매 그때 소장의 연유하므로 따르지 못하고 망극한 중 집에 돌아와 살기를 원치 아니하더니, 세월이 여류(如流)하여 지금까지 목숨을 보전하나 매양 누이를 생각하면 서러워하더니 아까 대풍에 주렴 중 부인을 보매 누이와 방불하기로 자연 비참하도소이다.”

상이 답을 하기 전에 황후가 이 말 듣고 좌우를 물리고 급히 나와 장백의 손을 잡고 방성대곡하며 오래도록 말을 못하다가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네가 내 동생 장백이냐? 그 사이 죽었더냐 살았더냐?”

그때 도적에게 잡히어 갈 때에 중로에서 잃고 어찌할 줄 모르더니 소상강 원혼을 면하고 자연 구하는 사람을 만나 부지하던 말이며 전후사를 이르니 장백이 슬퍼하며 희한하게 살아나 이처럼 만남을 신기히 여기고 즉시 계하에 내려 복지하며 옥새를 올려 말하기를,

[D] “나의 누이가 죽은 줄로 슬퍼하였더니 하늘의 도움을 입어 목숨을 부지하였으나 상이 그 처지를 혐의치 아니하고 황후를 삼으시니 은혜 망극하온지라. 수삼 년 전쟁에 민심을 요란케 하오니 만사무석(萬死無惜)하온지라. 복망 폐하는 진을 걸우사 환궁하심을 바라나이다.”

[E] 상이 장 원수가 돈수사죄(頓首謝罪)하고 옥새를 올리는 것을 보시고 환희하사 위로하기를,
“짐이 이제 제업을 이루었으니 경의 공이 아니면 어찌 이에 이르리오.”

- 작자 미상, 「장백전(張伯傳)」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 대결 상황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의 행동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상징적 배경을 설정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초월적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신이한 존재와의 대립을 통해 인물의 비범함을 부각하고 있다.

4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백은 천문을 통해 적병이 쳐들어 올 것을 예상했다.
- ② 문정은 유기의 지원을 받아 적을 급습했으나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
- ③ 유기는 장백과 황제의 공적을 언급하고 장백의 우세함을 인정하였다.
- ④ 황후는 과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조력자를 만나 목숨을 건졌다.
- ⑤ 주 씨는 제업을 이루게 되자 그 공을 장백에게 돌리며 고마움을 표했다.

4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꾸짖으며, ㉡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② ㉠은 지난 일을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은 일어난 일을 예측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원망하고 있다.
- ③ ㉠은 다른 대상과 견주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은 개인사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도덕적 가치를 판단의 근거로 내세워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내세워 상대방에게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천명(天命)’은 인간에게 내리는 하늘의 명령으로 인간이 임의로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운명이다. 「장백전」에서 주원장은 대명 건국이라는 천명을, 장백은 황제가 될 사람을 찾아 그를 도와야 하는 천명을 부여받은 인물이다. 자신의 천명을 알고도 장백은 이를 부정하며 주원장과 황제의 자리를 두고 대립하게 되지만, 결국 천명에 따라 주원장과 화합을 이루게 된다. 여기에 남매의 이별과 상봉이라는 작품 내적 장치는 두 인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① [A]에서 장백의 꿈에 나타난 철관도사는 장백이 품고 있는 계획이 천명에 어긋나는 일임을 환기시켜 주고 있군.
- ② [B]에서 장백은 누이와 이별하게 된 사연을 떠올리며 천명을 거스르고 있는 자신의 행위에 잘못이 있음을 깨닫고 있군.
- ③ [C]에서 장백은 원 황제에게서 확보한 옥새를 천명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으면서 황제가 될 인물이 자신임을 밝히고 있군.
- ④ [D]에서는 누이를 만난 장백이 주원장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남매 상봉이 천명을 수용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E]에서는 주원장에게 옥새를 올리는 모습을 통해 장백이 결국 절대적 운명의 길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